

민주 초선 “총체적 부정” 내각 총사퇴·특검을” 대림·코오롱·현대 등 5개업체 최대 6개월 공공기관 입찰금지

새누리 “땃글수사팀, 고의적 오류 해명해야”

‘불복 공방’ 새국면... 與 반격 vs 野 총공세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에 대해 ‘대선 불복’, ‘헌법 불복’ 세력으로 비난하며 첨예하게 이어져 온 이른바 ‘불복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 내 국가정보원 땃글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추가 기소와 관련, 새누리당이 28일 당시 수사팀의 증거 자료에 상당수 오류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대대적 반격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납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김대기 대검 차장·조영근 중앙지검장 등 사건 관련자 4인방의 문

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더 강화하고 여야 대치는 시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땃글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 5만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치명적 오류’라는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 땃글수사팀을 비롯해 여러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중립

적이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 일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흔들리는 검찰의 위상을 다시 반듯하게 세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인 발언이지만 새 검찰총장 인선을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여론의 대응 논리를 ‘2013년식 긴급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유신시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 했다. 또 ‘여권 =헌법불복세력’ 프레임에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지명되고 국정원 땃글수사팀 특별수사팀장을 경찰

한 사실 등을 언급,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다”면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불복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내현·김승남 의원 등 시민단체 및 486 출신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을 ‘총체적 신(新)관권·부정선거’로 규정하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 전면개편, 전면적 특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 주장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장·법무장관·대검 차장·중앙지검장 문책 등 지도부의 요구에 비해 한결을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새누리당의 ‘오류’ 발표에 대해 “명백한 수사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연주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사) 외압으로도 모자라 새누리당마저 수사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수사 방해로, 외압 그 이상의 비상사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정원 수사 자체를 봉쇄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이제 특검 도입과 같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 실시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책임 있는 정당과 세력이 공동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낙찰여부, 담합과 금품제공 경향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총인비리’ 제재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현대건설은 앞으로 2~6개월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28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5개사에 대해 부정당당자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 3개월,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 대해 3개월간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금품제공과 입찰자격 협정 때 법적 최고 제재기간인 5~7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공직위의 의결서와

발주의 관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낙찰여부, 담합과 금품제공 경향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제재 처분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다음달 초부터 이들 업체가 국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담합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광주시의 손해액도 34억원~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업체들은 광주시의 제재 조치에 대해 가져부심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lucky@kwangju.co.kr

“국정원 의혹 정확히 밝힐 것 사법판단 나오는 대로 조치”

정총리 첫 대국민담화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정부는 국정원 땃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 정부 들어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 총리의 담화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및 외압 논란과 관련, 정부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대신 야당에는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의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 드린다”고 담화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크루즈산업지원법안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소세법안 및 주택법안 등을 거론하며 “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이번 회기 내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버스와 같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담회에서 “우리 모두 벼랑 끝에 걸린 버스를 운전한다는 자세로 경제운용에 협력해야 한다”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내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0여명이 2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장애인복지회관 2층 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투표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선거위 제공)

광주시선거위, 장애인 투표 체험 눈길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8일 광주 장애인복지회관 2층 체육관에서 장애인투표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장애인투표 체험에는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장애인 응대 기본 예절과 장애인 유형별 응대방법 교육, 휠체어 이용방법과 시각장애인의 투표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와 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

도 이뤄졌다.

선거위는 그동안 선거인의 투표 불편 사례들을 수집해 유권자 위주였던 투표관리 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번 장애인투표 체험을 통해 과잉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상의 유권자 투표관리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선거위 시인리 관리과장은 “장애인투표 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강화

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선거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선거위는 지난해 실시한 양대선거(총선·대선)에서 ▲장애인 임시경사로 확충 ▲거동 불편자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투표소 앞 장애인 주차장 확보 ▲투표소를 찾은 장애인에 대한 기표 보조용구·응급 화대 등 장애인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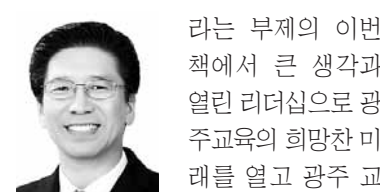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봉근 광주시의원 출판기념회

다음달 2일 김대중센터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봉근(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광주시의원이 다음달 2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 서구 광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큰 생각 열린 리더십’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단체장, 교육계 인사,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교육은 희망입니다’



라는 부제의 이번 책에서 큰 생각과 열린 리더십으로 광주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고 광주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밝힐 계획을 밝혔다. 한편 윤봉근 시의원은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중·고교 교사를 지냈으며, 현재 밀알중앙회 총재와 윤봉길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년 4월 ‘세계 새마을지도자 대회’ 연다

내년부터 개도국 맞춤형 농촌지역 개발 사업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시행되고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세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개최된다.

안행정부와 외교부는 28일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윤영재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새마을운동 전략보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안행부와 외교부는 등 지구촌 새마을운동 관계기관은 이번 전략보고회

를 바탕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을 마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세계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시소유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격:89억7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양 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장로5가 버스도모 대지777㎡(235) 공사지가 17억7천천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암읍 살리는 여관 대지 320평 건물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주택 대출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월곡·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호빌딩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현의원·사육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함 17억
- 광장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허가. 주택가격 12억가능. 투지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전세1000에 월40선. 매대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충동 (구) 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17억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17천만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정및참고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강진읍 송덕리 병동.저운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미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대3,500만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대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